

애독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의도적으로든, 관성적으로든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광속(光速) 같은 시간의 흐름에 새삼스럽게 놀라며 지나가버린 날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뒤섞인 채 또 한 해를 떠나보내곤 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을 커버 스토리로 담아 2018년 [연합이매진] 첫 호를 출간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호가 나왔습니다. [연합이매진]은 이번 호로 지령(誌齡) 452호를 기록했습니다. 화보집 성격인 월간 [세계]로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때(1981년 5월)를 기점으로 따지면 37년 하고도 6개월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창간 후 몇 차례 제호가 변경되긴 했지만 여행과 레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잡지의 기본 성격을 줄곧 유지한 채 2010년 3월 호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재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혹(不惑)을 향해 달려가는 [연합이매진]의 든든한 버팀목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 곳곳의 애독자 여러분들입니다. 독자들께서 주시는 격려와 과찬의 말씀은 저희 제작·편집진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값진 제언은 아이디어의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잡지 구성구석을 살펴보고 던져주시는 따듯한 지적은 완벽한 콘텐츠 생산에 대한 제작진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애독자 여러분이 엮어주신 정성스레 적어주신 소중한 의견을 일부 소개합니다. [연합이매진] 편집진 일동

"제약산 생태 탐방로 '폭포의 비경과 역사'. 제목 그대로 너무나 실사(實寫)의 사진만 보고도 흠뻑 취해버렸네요. 지역·문화·여행·인물·정보·뉴스를 모두 아우르는 풍성함에 너무 만족합니다." (이ㅇㅇ남경북 경주)

"<박물관탐방> 한국압화박물관 편. 독특한 소재의 박물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에서 체험까지 자세한 소개와 멀리 있지만, 꼭 가보고 싶은 '꽃' 박물관입니다." (이ㅇㅇ남서울 서대문)

"최근 친구들과 놀 때면 무엇을 하고 놀지 막막해진다. 그런데 이번호를 보고 알게 된 P-69에 있는 율미래 콘서트를 신청했고 P-74에 있는 '그녀 이름은'이라는 책을 구매해 읽고 있다." (조ㅇㅇ남대구 북구)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오색단풍이 풍성한 색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번호 가을 사진은 '만추'의 멋진 풍광이라 두고두고 사진첩에 넣어 보고 싶은 유익한 편집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매진>에서만 볼 수 있는 사진(천연색)과 재미있는 글... 계절 따라 엮어 놓은 편집 정말 좋습니다. 다음 겨울호 편집도 기대됩니다." (김ㅇㅇ남서울 도봉)

"프리즈커장 디렉터 '마사손'은 건축 전문분야 사람이 아니면 접하기 힘든 분인데 연합이매진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김ㅇㅇ남경기 용인)

"개인적으로 '갤러리시네마-콘서트-연극-클래식&뮤지컬-시간-문화사랑방'으로 구성된 콘텐츠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저에게 최고의 종합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ㅇㅇ남대구 달서)



"새내기 동해선 철도 열차를 타고 '포항~영덕...' 이국적인 블루로드 따라서 펼쳐지는 멋진 여행~ 겨울 추위가 가고 따뜻한 봄꽃 따라가는 여행~ 정말 '짱'였습니다!" (송ㅇㅇ남경기 성남)

"<역사기행> 자주 가보지 못하는 지역을 속속들이 가보는 듯 사진도 생생하고 윤선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니 역사적 상식이 늘었습니다. 생생한 스케치를 보고 나니 유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황ㅇㅇ남경북 안동)

"매달 기간과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6월의 주요축제'를 가족여행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매년 가는 토마토축제 날짜가 있어서 주말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ㅇㅇ남경기 구리)

"해의 여행지로 마땅한 목적지를 찾지 못했는데 Travel Abroad에서 소개해 준 슬로베니아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 제가 찾던 바로 그 해의 여행지입니다." (강ㅇㅇ남인천 남동)

"남원시를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남원의 숙박과 경치와 체험 및 문화를 알린 내용에 감동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정ㅇㅇ남경기 수원)

"오감 자극하는 '푸퐁퐁' 타이완 여행입니다. 명소, 맛집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때의 느낌이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타이완으로 당장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김ㅇㅇ남대구 달서)

"<박물관탐방>에서 철도박물관을 소개한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지하철, KTX, SRT가 보급된 요즘에는 과거의 철도 모습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회관 등에 있는 철도 모형이나 옛 기관차를 이매진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다음에 들려서 살펴볼까 합니다!" (박ㅇㅇ남대구 수성)